

## 2008년 5월 한·중 베이징 정상회담 평가

### 최 춘 흠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7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자칭린(賈慶林)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고위층과 면담하였다. 베이징 회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칭다오에 있는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과 한국의 영원무역을 방문하였다. 또 이 대통령은 쓰촨성(四川省)의 대지진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하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월에 있는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과 한·일 도쿄 정상회담에 이어 3번째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27억 달러 규모의 대중 투자 각서를 포함한 8개의 한·중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성과가 많았다.

첫째,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중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한·중 정상은 향후 양국이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분야 등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과 범세계적인 사안에 대해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를 정례화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에 합의한 것이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미 동맹 확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한국에 대해 한·중 관계 격상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한국이 중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와 한·일간 '미래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에 이어 큰 그림의 전략구도가 마련되었다. 한국이 향후 추진할 안보전략과 대외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전략공간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을 실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두 번째 성과는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의 진전을 지지하고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북한의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함을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비핵·개방·3000 구상' 등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이 공동선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3000'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의식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후진타오 정부는 이미 북한에 대해 '비핵·개방·3000'과 비슷한 전략구상 아래 대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어 한국의 대북 입장을 이해하고 내심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긴장된 면이 있으나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게 되면 북한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중국과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서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중국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은 충격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도와 논평을 통해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고 아울러 북한이 그만큼 중국의 위상과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향후 북한에게 한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려운 바, 서서히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성과는 한국이 냉전시대와는 달리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윈-윈 전략 구도를 확보한 점이다. 최근 중·미 전략대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같이 해나갈 것임을 선언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정상국가화 유도, 반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등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전략적 협력은 지속적인 상호 신뢰와 협의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부터 경제협력 확대를 토대로 정치, 외교, 안보, 군사,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증대한다는 방식에 동의하여 왔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협력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못해 특히 안보,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탈북자 송환문제를 거론치 않는 것은 신뢰구축을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중·북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중국이 한반도 통일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언급한 점,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대회 개막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할 것을 약속한 점, 지진으로 피해가 큰 쓰촨성을 방문해서 중국인들을 직접 위로한 점,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 및 수시 만남을 약속한 점 등은 한·중 양국의 신뢰 구축에 좋은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출발을 계기로 한·중 양국은 외교, 안보, 경제 차관급 ‘전략대화’를 상설화하고 나아가 군사, 사회, 문화,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협력을 증대하면서 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관계 개선, 한반도 안정유지, 북핵 폐기, 북한의 정상국가화 유도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